

2013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A형 정답

1	③	2	④	3	②	4	④	5	②
6	⑤	7	⑤	8	⑤	9	⑤	10	⑤
11	①	12	②	13	④	14	④	15	⑤
16	③	17	①	18	②	19	①	20	⑤
21	②	22	①	23	③	24	③	25	④
26	③	27	④	28	③	29	①	30	②
31	②	32	④	33	②	34	②	35	①
36	①	37	④	38	⑤	39	③	40	⑤
41	⑤	42	①	43	③	44	③	45	①

해설

1. [출제의도] 담화 유형과 화제 특성 및 상황에 맞게 내용을 생성한다.

대화 상황에 적절한 내용을 구성하고, 아울러 비언어적 표현까지 구사할 수 있어야 올바른 말하기라 할 수 있다. 문제의 상황은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생활복의 단점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복의 단점을 언급한다는 메모는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셔츠의 보이는 부분만을 다림질했던 경험을 언급하여 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⑤ 상대방이 앞에 있는 듯 묻고 대답을 듣는 듯 멈추었다 발화를 이어가는 것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떠올릴 수 있다.

2. [출제의도] 다양한 화제를 수집·탐구하고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다.

발표 후 다양한 학생들이 나름의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찬반 토론회를 준비하는 발표자는 청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화제를 적절히 준비해야 한다.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사복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교복의 기능만을 언급하는 것이어서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3학년은 교복이 작아져서 찬성을 하고 있고, 1학년은 교복을 새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서로의 상황이 달라 견해 차가 생겼다. ② 생활복을 채택한 다른 학교에 대해 언급한 학생(모범생)을 고려하면 주변 학교의 반응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의사소통을 위한 화법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석기와 주석의 대화이다. 주석은 석기에게 스마트폰을 살 때,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 등도 따져 볼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성능을 비교해 놓은 사이트들도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석기는 이런 주석의 말을 가볍게 대하며 진지하게 듣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석기에게, 상대의 충고를 성의 있게 들으라는 말을 해 줄 수 있다.

4. [출제의도] 화법의 요소나 기능을 이해한다.

선수가 은퇴 후 역도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진행자는 김 선수의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를 알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김 선수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얘가지, 사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5. [출제의도] 담화 참여자가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를 파악한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해 보라는 물음이다. 진행자는 ‘인터뷰가 처음이라면서요?’나 ‘제가 앞자리에서 손수건 건넨 거 기억하시죠?’와 같이 선수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질문함으로써, B의 조건을 위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제가 앞자리에서 손수건 건넨 거 기억하시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한번 해 보세요.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김 선수가 선수 시절에 보여 준 열정과 능력이라면 그 일도 분명히 잘하실 겁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작문 상황에 맞게 글의 내용을 구상한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것은 ⑤이다. ‘얼룩말의 연결된 무늬를 보고 맹수가 공격하지 못한다.’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축구부원들’이라는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설명문을 논설문으로 바꾸어 쓰려 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을 달리 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지 못했으며,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글의 목적을 달리하지 못했다. ②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친구들’이라는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제시했으며, 권유하는 글을 쓴다고 했으므로 글의 목적을 달리했다. ③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깨달음을 전하는 글로 쓴다고 했으므로 글의 목적을 달리했다. 그러나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7. [출제의도] 적절하게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

민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⑤의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는 내용은 이와 무관하므로 민수의 의견을 명료화하기에 부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민수는 개인의 실천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계획은 제도적 개선을 말하고 있으므로 둘을 포괄한다는 내용은 유의점1에 해당하여 적절하다. ④ 재회의 의견 중 선진국처럼 강력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연결되는 자료이고 유의점2에 부합하므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한다.

⑤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민수와 재회의 의견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각각이 지적하고 있는 태도의 변화, 제도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 은유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에 맞게 ‘열쇠’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재회의 의견만을 담고 있고 은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민수와 재회의 의견이 모두 나타났으나 은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출발’이라는 은유법을 사용했으나 재회의 의견이 담겨있지 않다. ④ ‘빛과 그림자’라는 은유적 표현을 썼지만 두 사람의 의견과 무관하다.

9. [출제의도] 적절한 글쓰기 전략을 구상한다.

주어진 글쓰기 과제는 그림에 대한 감상문 쓰기이다. 이에 대한 ‘과제 수행 기록’에 따르면, 그림에서 받은 인상적인 부분들로 나누어 글을 쓰겠다는 전략이 밝혀져 있다. 따라서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특정 과제가 주어져 있으므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다른 작품과 비교하겠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10.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표현을 바르게 수정한다.

문맥상 ㉠ ‘그렇기 때문에’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적절하게 연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등을 쓰는 것이 문장의 흐름을 고려한 고쳐 쓰기 방법이다.

[오답풀이] ① ‘과제 수행 기록’에 따르면 ‘농촌 생활 모습에 대한 감상’을 쓰는 것이 글의 목적이므로,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을 알 수 있다. ④ ‘에’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서’는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에’가 더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 현상 중 첨가를 이해한다.

‘한여름’은 [한너름]으로 발음된다. ‘여’의 ‘ㅇ’은 첫소리로 올 때 소릿값이 없으므로 음운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발음을 하면 [너]가 되므로 음운인 ‘ㄴ’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막히면’의 [마키면]은 ‘ㄱ’과 ‘ㅎ’이 합쳐져서 ‘ㅋ’이 되었으므로 ‘축약’에 해당한다. ③ ‘물난리’의 [물랄리]는 두 개의 ‘ㄴ’이 모두 ‘ㄹ’로 바뀌었으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④ ‘벗나무’의 [번나무]는 ‘ㅈ’이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⑤ ‘넣어서’의 [너어서]는 원래 있던 음운인 ‘ㅎ’이 사라졌으므로 탈락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부사어의 특징을 이해한다.

㉠ ‘친구처럼’과 ㉡ ‘점점’을 문장 내의 위치를 바꾸어 ‘보름달은 친구처럼 친한 다정하다.’, ‘밝은 점점 보름달이 다가온다.’로 쓰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따라서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위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정말’은 형용사 ‘아름답다’를, ‘점점’은 동사 ‘다가오다’를 수식한다. ③ ‘대체’는 생략을 해도 문장이 자연스럽지만 ‘친구에게’는 생략이 되면 ‘보여 주다’의 대상이 없어지므로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생략할 수 없다. ④ ‘대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반면에 ‘꼭’은 서술어인 ‘보여 주고 싶다’만 수식한다. ⑤ ‘친구에게’와 ‘꼭’은 모두 부사어이다.

13.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

‘빠지다’ ㉠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이고, ㉡은 ‘잠이나 혼수상태에 들게 되다.’이므로 ‘빠지다’는 ‘~한 상황에 놓이다’, ‘~게 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없다’의 의미는 ‘빠지다’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빠지다’와 ‘빠지다’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② ‘빠지다’ ㉠의 의미는 ‘때, 빗발 따위가 씻기거나 없어지다.’이므로 ‘물엿거나 붙어 있던 것이 닦이거나 씻겨 없어지다.’의 ‘지다’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⑤ ‘빠지다’ ㉡은 ‘잠이 들다’는 의미이므로 반의어로 ‘깨다’가 가능하다.

14. [출제의도] 사동 표현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탐구한다.

ㄴ의 주동문 ‘그가 집에 가다’에서 ‘집에 가’는 동작의 주체는 ‘그’이며, 이 문장의 사동문인 ‘(영희가) 그를 집에 가게 하다’에서도 ‘집에 가’는 동작의 주체는 ‘그’이므로 동작의 주체는 동일하다.

[오답풀이] ① ㄱ~ㄷ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ㄱ에서는 ‘철수’, ㄴ에서는 ‘영희’, ㄷ에서는 ‘어머니’라는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다. ② ㄱ에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부사어로, ㄴ과 ㄷ에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로 바뀌었다. ③ ‘떡다’에 ‘-시키다’를 붙인 형태인 ‘떡게 시키다’는 성립할 수 없다. ⑤ ‘가다’에 사동 접사를 붙인 형태는 성립할 수 없다.

15. [출제의도] 합성어를 형성하는 각 어근의 의미 변화를 파악한다.

‘구멍가게’는 ‘뚫거나 파낸 자리’를 나타내는 ‘구멍’과 ‘가게’가 합해져서 ‘조그맣게 차린 가게’라는 의미가 되므로 ‘가게’의 의미만 유지되는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① ‘덧밥’은 ‘물건 따위로 씌우다’라는 의미의 ‘덧다’와 ‘밥’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② ‘늦봄’도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라는 의미의 ‘늦다’와 ‘봄’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③ ‘돌다리’도 ‘흙 따위가 굳어서 된 광물질의 덩어리’를 나타내는 ‘돌’과 ‘물을 건너거나 다른 편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을 나타내는 ‘다리’라는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④ ‘안개비’도 ‘지표면 가까이 아주 작은 물방울이 떠 있는 현상’인 ‘안개’와 ‘비’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6~18] (인문) 현성용 외, 『현대 심리학 이해』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인 강화와 처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화가 외부 자극을 통해 어떤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사건이라면, 처벌은 외부 자극을 통해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사건이다.

16.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3문단에 강화물은 강화를 유도하는 자극을 가리키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오답풀이] ① 첫 문단에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로 강화와 처벌을 들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 강화와 처벌은 외적 자극을 통해 반응자의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했다. ② 2문단에 강화는 반응자의 행동이 미래에도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다. ④ 4, 5문단에 나타난 처벌의 사례를 보면 처벌은 반응자의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 처벌은 강화와 결합해서 사용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했다.

17. [출제의도] 글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ㄱ.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은 바람직한 행동이며, 기업의 입장에서 세금은 싫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이 싫어하는 세금을 줄여 줌으로써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의 증가를 유도해 내었기 때문에 ‘부적 강화’로 볼 수 있다. 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며 쓰레기를 버린 사람의 신원 공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신원 공개를 통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정적 처벌’로 볼 수 있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조작적 조건화의 기본 원리인 강화와 처벌은 사람에게 외적 자극을 주어 그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즉 외적 자극 없이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자제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작적 조건화를 비판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조작적 조건화는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강화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 목적은 물질적 욕망의 추구가 아닌, 행동의 변화에 있다. ④ 조작적 조건화는 강화물을 이용해 반응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이 만든 강화물은 결코 무시의 대상이 아니다.

[19~21] (기술) 대학 교양물리, 『스털링 엔진』

기존의 내연 기관과는 다른 스텔링 엔진의 구조와 원리를 소개하는 글이다. 기존 엔진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관이 스텔링 엔진이다. 스텔링 엔진은 온도에 따라 기체가 팽창·수축한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19. [출제의도] 각 단락에 제시된 내용을 올바르게 파

악한다.

스털링 엔진의 구조와 원리가 이 글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언제 누가 발명하였는지와 활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스텔링 엔진의 종류는 소개하고 있지 않다.

20. [출제의도] 글을 통해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

스털링 엔진의 작동 과정을 이해하였는지를 묻고 있다. 이 글은 스텔링 엔진의 동작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는데 기체의 팽창과 수축에 따라 피스톤이 이동하고 피스톤의 움직임에 따라 플라이휠이 돌아가는 과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좌위 피스톤 쪽에 모인 기체는 저열원에 의해 냉각되며 이때 좌위 피스톤은 기체의 냉각 수축에 따라 아래로 내려간다.

[오답풀이] ③ 1~4의 과정을 거치면 각각의 피스톤은 한 번을 왕복하고 플라이휠은 한 바퀴를 돈다. ④ 과정1에서 좌위 피스톤은 아래쪽에 있고,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왼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21. [출제의도] 동작 원리를 통해 기체의 성질을 추론한다.

기체가 열을 받거나 빼앗기면 부피가 팽창하거나 축소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엔진이 스텔링 엔진이다. 따라서 온도에 따른 부피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수록 스텔링 엔진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높은 온도에서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으면 좌위 피스톤을 밀어낼 수 없다. ④ 저열원에 의해 냉각되었을 때는 많이 수축될수록 효율적이다. ⑤ 가열과 냉각이 쉬울수록 효율은 좋아질 것이다.

[22~24] (사회) 임영호, 『의제설정과 역의제설정』

이 글은 최근 SNS의 등장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여론이 형성되어 전통적인 언론이 이를 의제화하도록 하는 ‘역의제설정’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과거에는 전통적 언론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의제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이 SNS를 통해 전통적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까지도 여론을 형성해서 전통적 언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용 여부에 따라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SNS 이용자들이 정보를 수용, 전달할 때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목으로 표현한다.

이 글의 표제가 되는 중심 내용은 SNS에 의해 일반 시민들의 여론 형성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며, 이를 전통적 언론에서 의제화하여 보도하는 ‘역의제설정’ 현상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및 SNS 이용자가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전통적 언론의 한계는 3문단, SNS의 부정적 측면은 4문단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③ 전통적 언론에서 SNS의 등장까지의 변화 과정은 2문단에만 소개되어 있다. ⑤ 전통적 언론의 영향력보다 SNS를 통한 ‘역의제설정’을 주로 다루고 있다.

23. [출제의도] 중심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파악한다.

<보기>는 SNS 이용자들 중 소수만이 정보를 생성한다는 연구 결과이다. 이 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SNS를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보기>로 미루어 SNS에서도 전통적 언론과 같은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찾아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소수만이 정보를 전달하므로 의제를 독점할 가능성은 낮다. ② 4문단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고 있다. ④ SNS 이용자들의 불만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⑤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24. [출제의도]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한다.

[A]에서는 ‘역의제설정’ 현상에서 검증되지 못한 정보를 토대로 형성된 여론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보아 필자가 SNS를 통해 여론이 형성될 때 신중한 태도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형성된 여론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여론의 검증이 전통적 언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④ ‘과당이 확산되는 것’이 여론이 비밀스럽게 형성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⑤ 4문단에서는 역의제설정 현상에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25~28] (과학) 박창업, 『지구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 글은 자연 현상의 예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부 맨틀에서 시작된 맨틀의 상승류가 판에 부딪치면서 화산과 지진 현상이 일어난다. 또 하강류가 발생하면서도 화산과 지진 현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맨틀의 상승류나 하강류이다. 그런데 상승류와 하강류는 흐르는 동안 여러 장애물을 만나 그 흐름이 불규칙하게 진행된다. 현대 과학으로는 그 장애물의 물질과 상태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 지진과 화산 활동의 예측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5. [출제의도] 읽기 과정에서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

3문단에 나오는 ‘이 부분’이 어디인지는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액체로 존재하는 외핵을 하부 맨틀이 누르면 이 압력으로 인해 다른 부분이 위로 솟아 오르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하강류가 외핵에 압력을 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압력에 의해 솟아오르게 된 다른 부분이다.

26. [출제의도] 개괄적 정보를 확인한다.

2문단에서 지구의 내부가 지각, 상부 맨틀, 하부 맨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진 층상 구조라고 밝힌 것에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판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그 분포에 대한 설명은 없다. ④ 외핵이 액체 상태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내핵의 구성 성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2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한다.

‘나’의 화산에서 분출되는 물질은 다른 판의 아래로 가라앉은 판의 물질이 녹아서 분출되는 것으로, 물질이 녹는 부분보다 아래에 있는 하부 맨틀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의 화산은 하부 맨틀에서부터 올라온 상승류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이 화산에서 분출되는 물질에는 하부 맨틀의 물질이 있을 수 있다.

28.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가 유사한 어휘를 파악한다.

㉓는 하부 맨틀의 물질이 상승류를 형성하며 위로 올라가는 상태를 표현한 말이므로, 이와 유사한 의미의 어휘로는 ‘움직여 옮기다’라는 뜻의 ‘이동(移動)하다’가 있다.

[오답풀이] ① 가동(可動)하다: 사람이나 기계 등이 움직여 일하다. ② 약동(躍動)하다: 생기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다. ④ 작동(作動)하다: 기계 등이 작동을 받아 움직이다. ⑤ 진동(振動)하다: 흔들려 움직이다.

[29~30] (독서) 학생의 면담 기사문

29. [출제의도] 독서의 기능을 이해한다.

‘작가’는 독서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작가의 글 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필자의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로 바꾼다고 했다. 이는 ‘의미 재구성 과정’이다. ③ 독서를 필자와 독자의 대화라고 말한 내용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다. ⑤ 100권의 책과 10권의 공책을 사는 이유가 다양한 지식을 얻고 생각을 넓히겠다는 뜻이라고 서술한 작가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바람직한 독서 태도에 대해 이해한다.

‘작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다. 그 특징은 글자를 읽는 데에만 열중하지 말고 필자가 감춰둔 보물을 찾고 필자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책을 읽을 때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끌어내어 자신의 책 읽기 태도를 반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②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작가는 서술 방법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④ 유명한 사람들의 책에 대해서도, 실용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반복적인 독서를 강조하거나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1 ~ 33] (현대시) 신동엽, 「껌테기는 가라」

이 시는 4·19 혁명, 동학 농민 운동의 정신이 퇴색되어 가는 현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작가는 이런 상황에서 초래된 남북 분단의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4월과 동학의 정신을 훼손하는 부정적 세력을 몰아내고 때 묻지 않은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이 시는 ‘껌테기는 가라, 쇠붙이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아우성만 남고, 흙 가슴만 남고’ 등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얻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시는 명령형 어조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대상과의 친밀감을 찾을 수 없다. 껌테기를 비롯한 부정적 대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 알맹이를 비롯한 긍정적 대상이 남아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32. [출제의도] 시어나 시구의 의미, 기능 등을 파악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각각 남북한을 대표하는 두 산인 한라산과 백두산을 통해 ‘한반도’라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라’라는 명령형 어조에서 화자의 단호함을 느낄 수 있다. ② ‘아우성’은 동학년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청각적 이미지가 결부된 ‘아우성’이라는 시어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⑤ ‘모오든’은 언어 규범을 파괴한 시적 허용의 표현이다. 이를 통해 이어지는 내용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33. [출제의도] 자료의 맥락을 고려하여 시를 감상한다.

‘중립의 초례청’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아사달 아사녀’가 맞절하는 공간으로 남과 북이 화해를 모색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껌테기’는 작가가 물리치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 현실의 문제를 유발하는 외세와 우리 내부에도 존재하는 그들의 추종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에서 맞절하는 것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흙 가슴’은 화자가 긍정

적으로 여기는 대상으로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인 대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4 ~ 37] (고전소설) 김시습, 「이생규장전」

소설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두 번째로 실려 있는 작품으로, 이생과 최 여인의 사랑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자유연애나 귀신과의 사랑 등 당시에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설정과 내용을 담고 있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이해한다.

지문은 흥건적에 의해 죽임을 당한 최 여인이 이생에게 다시 나타나 함께 살아가며 사랑을 나누다가 저승으로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귀신이 나타나서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물의 성격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③ 지문에는 장면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다. 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35. [출제의도] 삽입시의 기능을 파악한다.

이 작품의 특징 중의 하나는 삽입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삽입시는 주로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A]는 정서를 드러내는 것 외에도 최 여인이 과거에 겪었던 사건에 대해 환기하고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ㄷ. [A] 앞 부분에서 뚜렷한 갈등 구조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ㄷ. [A]에서 최 여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 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건의 교훈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36.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하게 한자성어를 활용한다.

이생은 귀신으로 자신을 찾아온 최 여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은 최 여인이 저승으로 떠나 버린다. ㉞는 최 여인이 이생에게 이별을 알리는 것으로 이를 들은 이생의 심정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뜻의 ‘청천벽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② 겉초보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③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 ④ 전화위복: 재앙과 환란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⑤ 비분강개: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

37.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

㉞ 부분에 나오는 ‘유해’는 최 여인 자신의 것이다. 그러므로 ㉞은 부모의 장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신을 잘 수습해 달라는 부탁이다.

[오답풀이] ㉠에는 최 여인이 나타나자 두문불출하며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만 몰두하는 이생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해 이생은 최 여인과의 사랑 때문에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에서 세 번의 만남이 있었고 이제 또 이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최 여인과 이생 사이에는 이미 두 번의 이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8 ~ 39] (가) 정철, 「속미인곡」 / (나) 황진이의 시조.

(가) 정철, 「속미인곡」

이 작품은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두 여성 화자를 등장시켜 임(임금)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순 우리말을 아름답게 구사하여 가사 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 황진이의 시조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애절한 기다림을 노래한 호소력 짙은 시조이다. 음성 상징어, 대조법 등의 기법과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연정가의 대표작으로 일컬어

진다.

38. [출제의도]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이해한다.

(나)의 ‘춘풍 이불’은 따스한 이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적 화자가 임이 돌아오는 날에 사용하려는 것이다. (나)에서 화자가 임을 위해 새롭게 이불을 만드는 상황은 아니며, 화자가 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맞지만, 임과의 재회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가졌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39. [출제의도] 작품을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

㉠에는 화자가 한밤중에 독수공방하는 처지가 나타나 있고, ㉡에는 밤(시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발상 및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건에 맞춰 시행(詩行)을 창작한 것은 ㉢이다.

[40 ~ 42] (현대소설) 전광용, 「꺼삐딴 리」

이 작품은 민족 수난기를 배경으로 기회주의적 처세술을 보이는 ‘이인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소설이다. 여기서의 이인국은 사회 지도층을 상징하는 인물로, 작가는 이 인물을 통해 우리 현대사가 왜곡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구성 방식을 파악한다.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문에 나타난 사건을 정리하면 ‘이인국의 아들이 의대에 입학함 → 이인국의 아들이 소련으로 유학을 감 → 이인국이 동란 후 월남함 → 이인국의 아내가 죽음 → 이인국이 자동차 안에서 신문 읽음’의 순서가 된다.

41. [출제의도] 인물 형상화 방법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A]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이인국은 소련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출세를 위해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격다짐으로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이인국의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예민한 것은 아니다. ② [A]에서 이인국의 말투는 단호하지만 폭력적인 것은 아니다. ③ [A]에서 이인국이 체념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④ [A]에서 이인국이 과거에 집착하거나 낡은 습관에 젖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니다.

42. [출제의도] 속담의 함축적 의미와 그와 관련된 삶의 방식을 추리한다.

㉠에서 이인국은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서는 러시아어를 배워야 한다며 아들에게 러시아어 습득을 권유하고 있다. ㉡에서 이인국은 소련 유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과 ㉡은 소련이 특색한 시류에 따른 이인국의 대응 방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고기’, ‘물 속’, ‘호랑이’, ‘굴’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아들과 아내라는 서로 다른 청자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43 ~ 45] (희곡) 유치진, 「소」

이 작품은 국서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사슴과 소작료를 두고 갈등을 벌이며 겪는, 농촌의 참담한 현실을 그린 사실주의의 대표작이다.

43.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극중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말뚝이는 밀린 도지를 독촉하는 사슴의 말에 ‘그걸 어찌야 한단 말요?’, ‘아니 빠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것 막 다 가져갔죠.’라고 말하여 사슴에게 대들고 있다. 국서는 말뚝이를 ‘헛간 밖으로’으로 끌어내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말뚝이를 사슴에게서 떼어놓고 있다.

[오답풀이] 사슴은 밀린 도지를 독촉하며 말뚝이와 다투고 있지만, 극적 반전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처는 사슴이 화가 난 것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국서에

게 반발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이나 태도를 파악한다.

[A]에서는 밀린 도지를 다 갚지 않으면 내년에 귀찮게 된다고 말하고, [B]에서는 밀린 도지를 갚지 않으면 최후 결단을 짓겠다고 말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사음이 국서의 입장을 배려하는 척하며 회유하는 모습은 [A]에만 드러난다. ④ [A]에서 ‘이놈이 왜 어른 말하는데 쌍지팽이를 짚고 나서?’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회적 연륜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45. [출제의도] 작품을 통해 희곡의 극적 특징을 파악한다.

사음이 화가 나서 나간 후에 말뚝이가 국서를 ‘슬슬 피하며’ 퇴장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무대에 실제로 나타나는 장면이므로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